



Gsef 2014

2014 국제 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총회 및 기념포럼

도시농업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생이모작 -

- 일 시 : 2014년 11월 19일(수) 오전 9시~10시 30분
- 장 소 : 서울시민청 워크숍룸
- 주 최 : 서울특별시, GSEF 2014 서울조직위원회
- 주 관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GSEF 2014 임시사무국)
- 세션주관 : 서울연구원, 도시농업시민협의회 부설 도시농업연구소, 에코 11
- 세션후원 :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동국대학교 생태계서비스 연구소

□ 목 차 □

I. 포럼 및 세션 개요 3

1. 포럼 소개 4

2. 세션 안내 6

II. 기조발제 8

기조발제문 1 지속가능한 인생이모작으로서의 도시농업9

키쿠치 토시오(일본지리학회 이사장)

기조발제문 2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도시농업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12

백혜숙(에코 11 대표)

III. 지정토론문

별지 참조



포럼 및 세션 개요



1. 포럼 소개
2. 세션 안내

1. 기념포럼 슬로건 및 주제 : 변화를 향한 연대

- GSEF 2014가 올 해 내건 슬로건은 '변화를 향한 연대: Solidarity for Change'입니다.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변화는 양극화를 재생산하는 낡은 사회경제 패러다임에서 공동체가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는 물론, 경쟁을 넘어서는 연대의 삶을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윤리적 가치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혼자가 아닌 서로를 책임지면서 자유로워지는 연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환경과 생태, 에너지, 경제 위기 등 근래 인류가 맞닥뜨린 문제들은 어느 한 나라도 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협동을 통한 사회혁신, 생태위기의 극복, 소외된 이들의 존엄성 회복, 참여 민주주의의 심화 및 확대 등을 통하여 '더 나은 삶과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번 총회는 이러한 신념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의 국제연대 네트워크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행동계획을 함께 논의하고 약속할 것입니다.

2. 행사 개요

- 행 사 명 : 2014 국제 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총회 및 기념포럼(2014 Inaugural Meeting of the Global Social Economy Forum (GSEF 2014))
- 일 시 : 2014. 11. 17(월) - 19(수), 총 3일간 (부대행사 일정 제외)
- 장 소 : 서울시청 및 시민청
- 주 최 : 서울특별시, GSEF 2014 서울조직위원회
- 주 관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GSEF 2014 임시사무국)
- 참가규모 : 국내외 사회적경제 지방정부, 민간단체, 네트워크, 시민 등 5,000여명
- 주요 프로그램
 - 11.17 (월) 창립준비회의 및 환영만찬
 - 11.18 (화) 창립총회 개막식 / 전체회의/ 기획 및 일반세션/네트워킹파티
 - 11.19 (수) 창립준비회의/ 기획 및 일반세션/ 창립총회 폐막식

○ 프로그램 일정표(19일 오전)

대회의실	다목적홀	태평홀	바스락홀	워크숍룸	이벤트 홀	
3F	8F	B2F	B2F	B2F	B2F	
[BS 11] 사회적 경제 이론과 실천 서울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영어)	[TS 03] 지역 커뮤니티 성장을 위한 자산형성 전략 서울시 마을기업 사업단,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TS 02] 사회성과 연계채권(SIB) 한국사회투자 (영어)	[TS 04] 사회적경제와 국제기구의 역할 UN TF on SSE, UNDP 서울정책센터, GSEF 2014 서울조직 위원회 (영어)	[BS 12]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생이모작 서울연구원, 도시농업 시민협의회 부설 도시농업연구소, 예코11 (일본어)	[BS 18] 사회적경제와 환경 푸른 아시아 (영어)	09:00
			휴식			10:00
			[BS 13] 서울선언의 의의와 전망 일본 서울선언문 연구 모임 (일본어)	[BS 14] 사회적 경제와 사회혁신의 관계 Social Innovation Exchange (SIX), 스프레드아이 (영어)		11:00
						12:00

○ 서울시민청 지하 2층 안내



비고) 다과(커피와 간식)는 바스락홀 쪽 로비에서 이용가능합니다.

2

도시농업 세션 안내

1. 개최 배경

- 2014 서울 사회적 경제 포럼의 슬로건은 '변화를 향한 연대: Solidarity for Change'로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변화는 양극화를 재생산하는 낡은 사회경제 패러다임에서 공동체가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목표로 함
- 환경과 생태, 에너지, 경제 위기 등 근래 인류가 맞닥뜨린 문제들을 사회적 경제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통한 사회혁신, 생태위기의 극복, 소외된 이들의 존엄성 회복, 참여 민주주의의 심화 및 확대 등을 통해 극복하고자 함
- 도시농업 세션의 주제인 '도시농업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생이모작'은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1955~63년생, 약 700만명)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시지역의 은퇴자가 환경과 생태,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한 분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 또한, 본 세션의 내용은 본 포럼의 주요 주제인 '공공-민간-공동체 파트너십'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시민사회를 통해 사회적 경제의 연대와 행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사회적경제-시장경제-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발전모델의 개발 등에 부합하고 있음

2. 세션 개요

- 일시 : 2014년 11월 17일(월) ~ 19일(수) 중 19일(수) 오전 9시~10시 30분
- 장소 : 서울시민청 워크숍 룸
- 주최 : 서울특별시, GSEF 2014 서울조직위원회
- 세션주관 : 서울연구원, 도시농업시민협의회 부설 도시농업연구소, 에코 11
- 세션후원 :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동국대학교 생태계서비스 연구소

3. 세션 진행

1) 사회 : 강내영(도시농업시민협의회 부설 도시농업연구소 부소장)

2) 발제

- 키쿠치 토시오(일본지리학회 이사장) : 지속가능한 인생이모작으로서의 도시농업
- 백혜숙(에코 11) :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도시농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3) 토론

- 좌장 : 이창우(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자
 - 김정태(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센터장) : 은퇴자들의 도시농업 관련 상담 및 활동사례
 - 안철환(도시농업시민협의회 대표) : 도시농업에서 은퇴자들의 역할
 - 최영식(문래텃밭 텃밭지기) : 베이비부머로서의 도시농업 텃밭지기 사례
 - 장진(동국대학교 생태계서비스 연구소 연구원) : 스쿨팜에서 베이비부머의 역할

4. 세션 진행

시간	내용	발표자
8:30 ~ 9:00	세션 참가자 등록	
~ 9:10	개회 및 인사말	강내영 부소장
~ 9:25	발제 1) 지속가능한 인생이모작으로서의 도시농업	토시오 교수
~ 9:40	발제 2)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도시농업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백혜숙 대표
~ 10:25	토론 - 김정태, 안철환, 최영식, 장진	좌장 : 이창우 박사
~ 10:30	폐회	강내영 부소장



기조 발제



기조발제문 1

지속가능한 인생이모작으로서의 도시농업

- 키쿠치 토시오(일본지리학회 이사장)

기조발제문 2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도시농업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 백혜숙(에코 11 대표)

기조발제 1

지속가능한 인생이모작으로서의 도시농업

키쿠치 토시오(일본지리학회 이사장)



용어 설명

신전(新田) : 새로 개간한 논

신전 개발은 제방·간척·매립에 의해 경작지로 개발하는 것

생력적(省力的): 산업의 기계화, 자동화, 무인화 따위가 촉진되어 노동력이 줄게 됨

포장(圃場): 정비의 한 방법, 경사지의 협소한 계단식 논 등을 여러 개 모아 면적을 넓히거나 형상을 가지런히 하는 것임.

단경기(端境期): 철이 바뀌어 햇것이 나오는 시기

JA: 일본의 전국농업협동조합 연합회

계통출하(系統出荷):

농·축·수산물 등을 각각 소속 협동조합인 농업·축산업·수산업 협동조합의 유통체계를 통해 출하하는 것

원농(援農): 볼런티어로 농사일, 농원체험, 농산물 판매를 도와주는것

카타리부(語り部) 상고 시대에 大和 조정에 출사하여 신화·전설을 외어 서 이야기하는 것을 직무로 삼았던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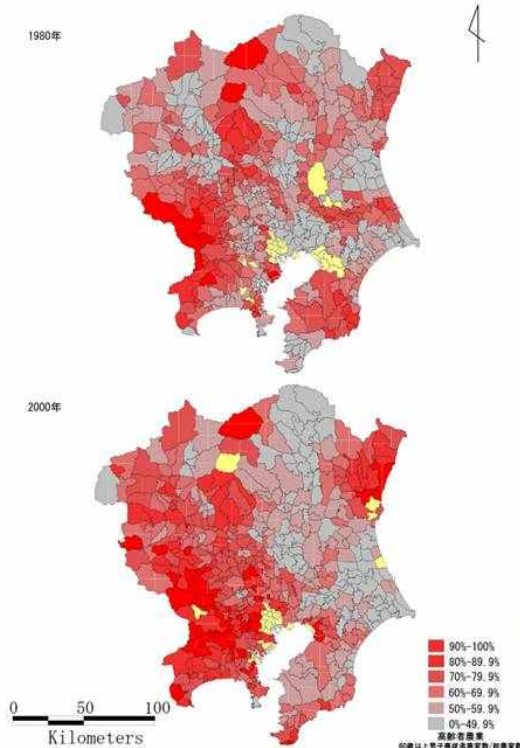
목적

동경 근교의 타치가와시 스나가와 지구를 사례로 하여, 퇴직자·고령자의 지속가능한 활동에 기반한 도시농업의 재편과 농촌 공간의 상품화의 여러 가지 양상을 살펴본다.



타치가와시 스나가와 지구

- 근세의 신전(新田)개발로 무사시노(武蔵野) 대지의 농지화
- 지역 농업이 발농사에서 도시 근교 농업, 그리고 도시농업으로 변화됨.
- 농가나 농지가 집중, 잔존하며 식목이나 아채, 과수, 화훼, 축산물 등 다양한 농산물의 생산지
→ 도시농업의 새로운 역할에 입각한 재편



일본의 고령화 지역의 유형

- 고도경제성장기 이후의 도시와 농촌의 경제 격차 →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유출(과소화·고령화)
- 산촌진흥법·과소법 등의 구제 노력 → 과소화·고령화·소득 격차 등을 막을 수 없음(중산간 지역 문제)
- 고령자 농업의 확대(좌측 그림) → 농업 노동력의 저하·휴경지의 확대·토양 침식의 증대·토지의 열악화·환경문제

→ 과소 지역뿐만이 아니라 대도시 지역, 대도시 근교에도 고령자 농업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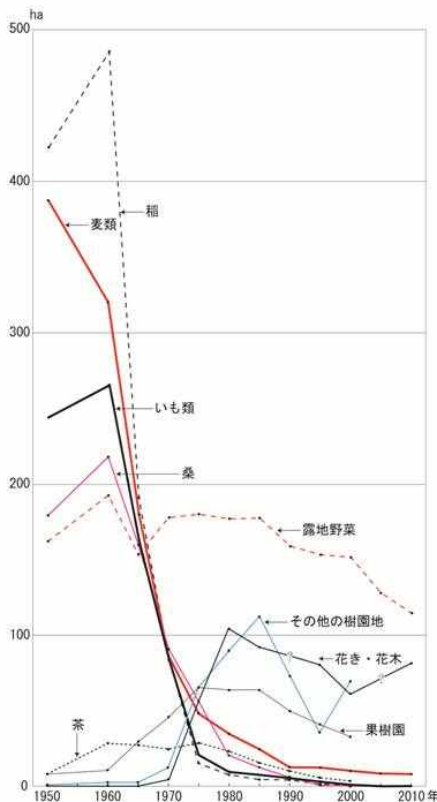
타치가와시의 농가수와 농지의 변화

① 농가의 수 :

- 1960년경까지는 전업농가나 제1차 전업 농가가 많았음.
- 1965년부터 1990년에 걸쳐서 겸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됨.
- 1990년 이후로는 농가수의 감소가 둔화되고, 전업농가나 제1종 겸업 농가가 유지됨 (고령화나 도시 농업의 재편과 관련)
- 1990년 이후 인증농업인 (경영체) 증가 (농가의 고령화 대책의 일환)

② 종목별 경영 농지 면적 :

- 1960년 이후 경영 농지 면적이 급속하게 감소 (도시화와 관련)
- 대지(台地)의 토지 조건에서 밭과 과수원 토지의 토지 이용이 중심
- 1970년대 이후 고령화나 농업 노동력의 저하로 생력적(省力的)인 농업적 토지 이용(수목·묘목생산)의 확대



타치가와시의 작물 재배 면적 추이

① 1960년까지: 양봉, 밭벼와 맥류의 재배에 감자류와 노지 야채를 조합 한 농업

② 1970년 이후, 밭벼, 맥류, 뽕나무의 급감→노지야채, 화훼·꽃나무, 과수, 정원수·묘목의 증가: **도시 근교 농업의 발달**

③ 재배 작물의 다양화와 소규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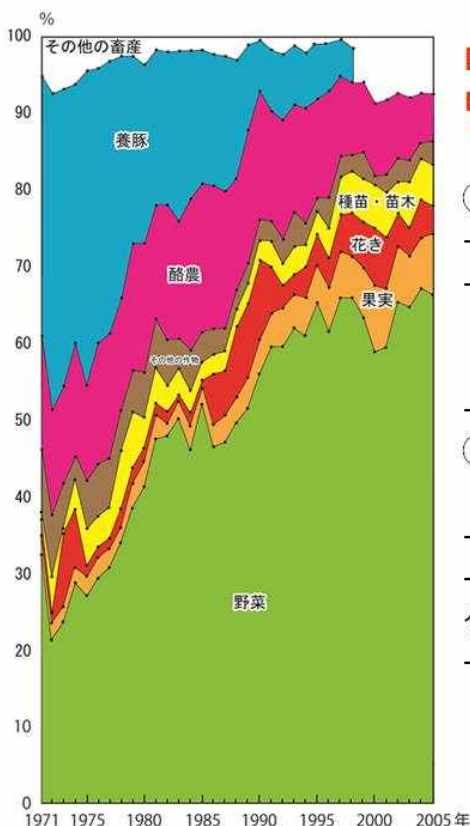
→이런 저런 작물을 조금씩 재배함

(다품종 소량생산과 다모작화):

도시농업의 발달(고령자 농업에 적합)

→저렴하고 대량으로 규격화된 농산물 이 요구되는 대도시 시장에 맞지 않는 농업생산 형태: 지역 시장이나 농산물 직판장 등의 출하 형태가 발달

(**고령자 농업의 직판장 발달**)



타치가와시의 농산물 생산액 구성의 변화

① 주요한 상품 생산 부문

→ 1960년대: 양봉(경제적 이윤 쇠퇴)

→ 1970년대부터 1980년대:

낙농과 양돈(택지화와 함께 축산 공해 문제로 인해 쇠퇴)

→ 1990년대 이후: 야채 생산

② 2000년대 이후: 야채 구성비의 부진 (침체)

→ 고령자나 제2종 겸업농가의 증가

→ 생력 작물의 재배(정원수나 묘목 등)로 생산농지(농지)의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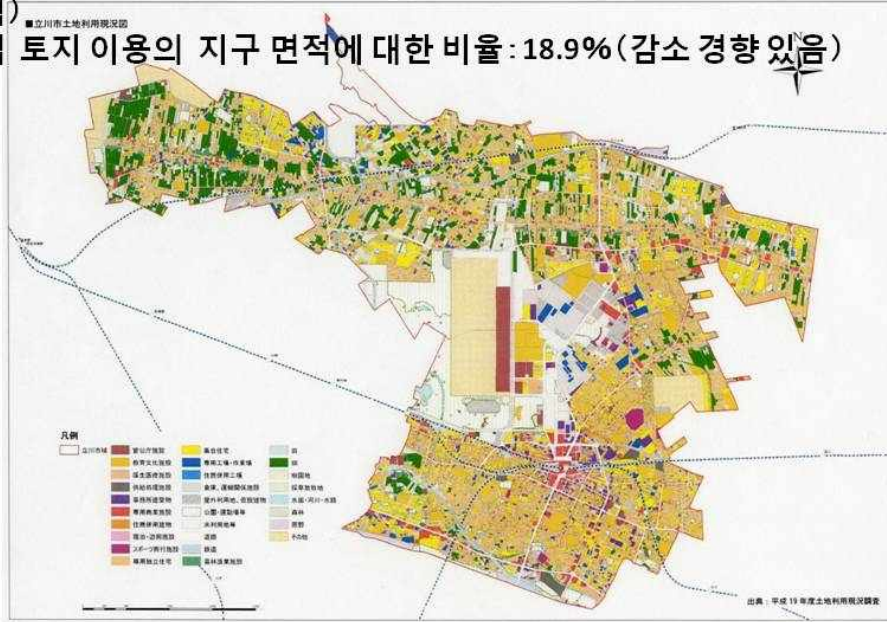
→ 농산물 직판장을 중심으로 하는 야채 판매(다품종 소량생산, 고령자 농업은 농산물의 소상권(소 점포)으로 대응)

타치가와시 토지 이용(2009년)

농업적 토지 이용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 도시지역 북부의 오우메(青梅)가도를 따라 위치하는 스나가와 지구

스나가와 지구: 근세에 새로 조성된 신전 촌락(대도시권의 도시농업지역으로 평가됨)

농업적 토지 이용의 지구 면적에 대한 비율: 18.9%(감소 경향 있음)



타치가와시 생산 녹지 분포(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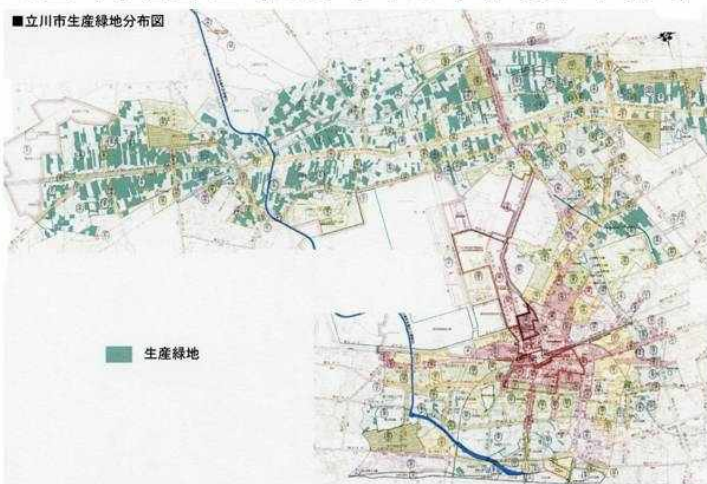
① **생산 녹지**: 대도시의 농지 보전 시책(토지 과세의 면제와 유예)

② **생산 녹지율**(생산 녹지 면적 / 시가화 구역 면적)은 도시 지역 북부에서 16.8%로 탁월함

→ 도시 지역의 농지나 농업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농산물직판장**

→ 소비지에 인접하고, 소비자(도시주민)의 니즈에 부합하는 농업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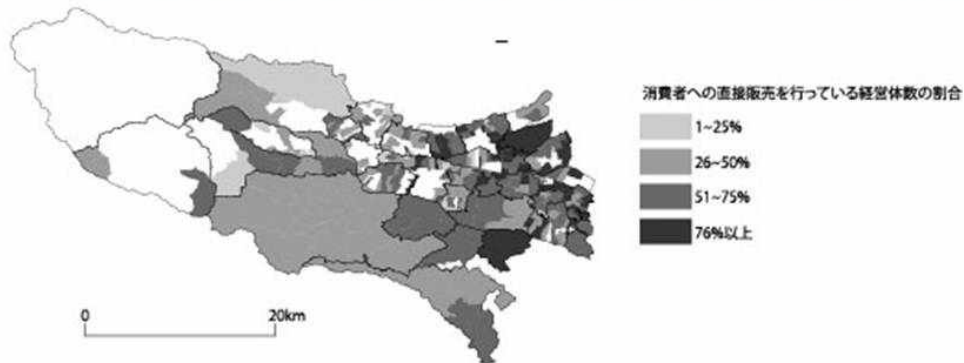
→ 도시주민의 도시농업이나 농지에 대한 이해(타치가와시의 대시민 앙케이트)



동경도 농산물 직판장의 입지 현황

(2010년 농업 센서스 - 촌락 카드의 분석)

- 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실시하고 있는 농업경영체의 비율
 - 동경도의 23개 특별구의 주변 녹지와 인접지의 76% 이상으로 높음
 - 도시 지역에서 멀어질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JA 등을 통해 공동출하가 많아지게 됨) : 농산물 직판장은 도시농업을 지지하고 있는 유통 형태
- ② 타치가와시의 북부(스나가와 지구) : 직판장을 담당하는 다수가 고령농가(60세 이상)
 - 51~75%로 비율이 높은 지역에 위치함(직판 형태가 농산물 판매의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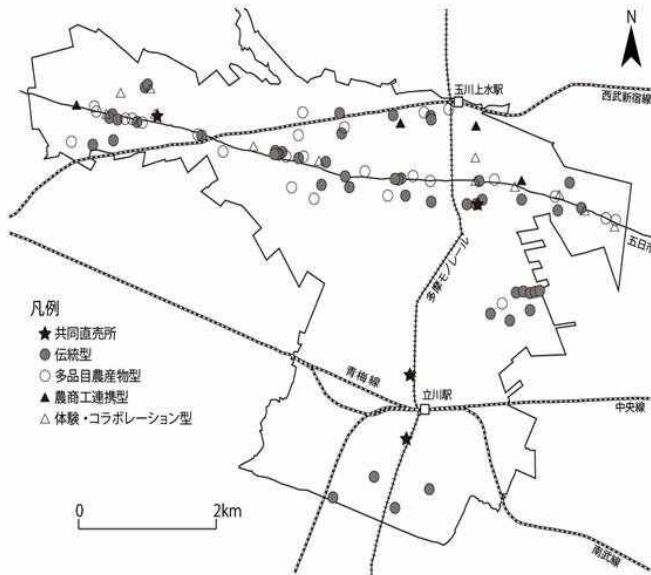


타치가와시 농산물 직판장

- ① 4개소의 공동 직판장
 - 각각의 공동 직판장의 구성 농가수(개인 경영을 제외하고 북쪽으로부터 8호, 23호, 30호, 88호)
 - 개인 농산물을 각자 가져와서 진열하여 고령자 농업에는 맞지 않음
 - 개인 경영의 직판장이 적은 터라 구성 농가는 많음
- ② 개인 경영의 직판장: 93개소(스나가와 지구에는 87개소)
 - 농산물 직판장을 이용하는 농가의 비율: 62%로 높음
 - 다품목 소량생산으로 정성스럽게 농산물을 생산하는 고령자 농업에 적합함
 - 개인 경영의 직판장 4개로 분류 가능함(제공 품목의 많고 적음, 타업종이나 타 상품생산과의 조합으로부터 판단)



타치가와시 농산물 직판장(93농가)의 유형과 입지



① **전통형**: 농산물 단순 판매, 짧은 판매시간, 적은 품목, 긴 단경기(端境期)(49호)

② **다품종 농산물형**: 도시주민의 니즈를 반영, 많은 품목 구성, 다양한 판매 방식(28호)

③ **농상공 연계형**: 다양한 농산물 판매, 가공품 생산·판매, 농가 카페 & 레스토랑 경영(4호)

④ **체험·콜라보레이션형**: 직판장의 경영과 농산물의 생산 체험 운영(12호)



① 전통형의 농산물 직판장

고령자 농업에 적절한 농산물의 판매 방법(소규모 농업, 다품목 소량생산, 연간 농업 노동의 생력화와 표준화)

→ 무인 스탠드형 직판장, 또는 자동판매기형의 직판장(인근 주민과의 신뢰관계에 기반한 입지)

→ 판매 품목이나 양은 농가의 사정에 의해 결정(무리하지 않는 농업: 삶의 의욕이나 농지를 보전하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 부정기적인 영업시간과 영업일(영업일은 주 2회 또는 3회로, 오전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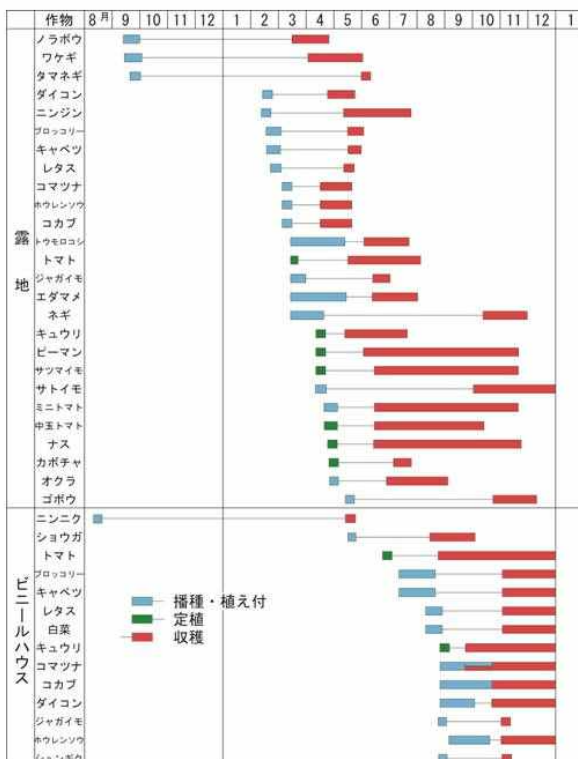




타치가와시 스나가와 지구의 농산물 직판장의 변화



- ① 전통형 직판장 경영이 쇠퇴임
(고령자농업에 적합)
- ② 전통형은 농가의 고령화로 감소
경향
- ③ 전통형 직판장 경영 농가 중에서
농업후계자가 있는 농가는 다품
목 농산물형, 농상공 연계형,
체험·클라보레이션형으로 이행
- ④ 직판장 경영을 어떤식으로 할지
에 관해서는 농업후계자의 사고
방식이나 의사 결정에 좌우됨
- ⑤ 농상공 연계형은 가족 경영의
분업체제가 확립된 농가가 가능



② 다품목 농산물 형 사례

- **농장 규모**: 택지 지구에 연계한 포장(圃場) 54a와 약간 떨어진 장소의 포장된 20a
- **농업종사자**: 경영주(46세)가 전담, 부친(69)이 보조, 모친(64)은 직판장 판매원
- **농업경영의 경위**:
1970년대까지는 두릅 등을 중심으로 하는 노지 채소 재배.
1970년대 후반부터 정원수 재배나 주차장 경영.
2000년 이후 장남의 농업 계승을 계기로 야채 재배 중심의 농업 경영으로 전환.
2007년 이후 야채 재배로 한정된 경영(다품종 소량생산) 시장 출하에서 직판장으로 전환(수입의 약 20~30%가 농업 수입, 그 외 부동산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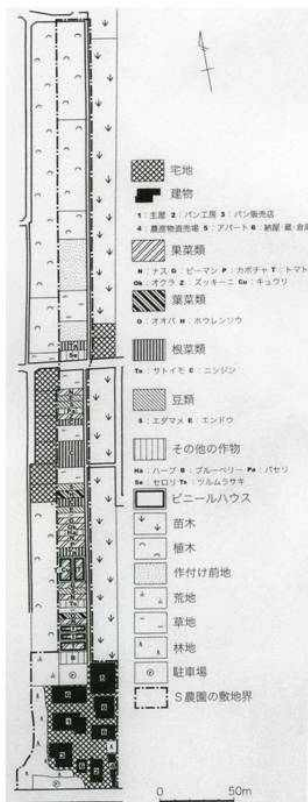


다품목 농산물형 경영 특징

- ① **다품목 소량생산**(노지에서 26품목, 비닐하우스 14품목)
 → 경지 이용의 고도화(다모작)
 → 수확시기를 길게하는 기술
 → 직판량만을 수확하는 작물재배
 (많은 수확 노동력이 필요하기때문에 고령자와의 역할 분담 효율화)
 → 도시주민의 니즈의 반영
 (토마토에도 생식용, 조리용 등 용도에 맞게 다수 종류를 재배)
 → 1년을 내내 출하 가능케함
 (사례 농가는 직판 시기: 4월부터 12월까지, 주3일부터 5일 판매)
- ② **소상공인**: 직판소의 상권은 반경 500m 이내의 도시주민(선친때부터 알고지내는 주민)
- ③ **지역과의 강한 결속**(학교 급식에 식재료를 제공하거나 식육, 및 원농(援農)볼런티어의 이용, 고령자가 먹거리 전달사(語り部)로 활약)

立川野菜販売時期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うど												
小松菜												
ほうれん草												
春巻												
いんげん												
ブロッコリー												
トマト												
ピーマン												
にんじん												
なす												
きゅうり												
枝豆												
キャベツ												
白滝												
長ねぎ												
かぶ												
とうもろこし												
大根												
ごぼう												
玉ねぎ												
きつね芋												
里芋												
じゃが芋												
ブルーベリー												
梨												
キウイフルーツ												



농상공 연계형의 사례

- **농장규모**: 신전 촌락의 직사각형의 토지 분할된 포장(圃場) 1.5ha중에서 80a를 농지로서 이용함 (그외 정원수·묘목 밭)
- **농업노동력**: 세대주 부부와 후계자 부부 및 농업 연수생(고령자는 농업기술의 전승자로서 역할)
- **농업경영의 경위**:
 1960년대 까지 양봉이, 1975년경까지는 양돈이 농업 경영의 중심
 1980년대가 되면서 두릅을 중심으로 한 야채재배 (JA의 계통출하(系統出荷)를 이용한 시장 출하)
 1990년대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야채 재배로 전환 (계통 출하로부터 직판장으로 이행): **고령화 대책**
 2000년 이후, 무농약·무화학비료의 농산물 판매 (직판장을 활용한 작물재배): **고령화와 부가가치화**





농상공 연계형 경영의 특징

①가정내의 분업 체계 확립

세대주·후계자·연수생

→다품목 소량생산의 농업

→무농약·무화학비료의 야채생산

세대주의 처·딸 부부

→야채빵 제조시 야채사용

후계자의 처·딸 부부

→농가레스토랑, 빵 판매

후계자 부부·연수생

→직판장의 판매

②적정 규모로 야채를 재배하고, 빵 생산, 직판장을 운영(규모화를 목표로 하지 않고 소규모의 소형점포를 유지함)

③직판장 상호간 연계를 도모

→개인 직판장에서 농산물 판매를 꾸려감

→공동 마르쉐(장터) 개최(타치가와 역전 광장에서 개최, 타치가와 야채 홍보와 브랜드화를 도모)

④신규 취농자(농업인)의 육성



④체험·콜라보레이션 형의 농산물 직판장

*농산물 직판장과 농산물 체험을 결합한 농장

→젊은 세대가 경영하는 농장

*경영 농지 면적: 1.8ha(직판용 농산물 생산 1.0ha와 체험 농장용 0.8ha)

→직판장용의 생산농장 : 젊은 세대가 혼자서 다품목 소량생산을 위해 노동력 부족을 해결 (이웃주민 중 실버 볼런티어의 원농(援農) 제도를 활용)

→ 체험 농장(이웃주민이 농업을 여가나 레크레이션 활동의 하나로 이용) : 56건의 이용자 중 고령자의 이용은 36건(도시 농업이 도시 근교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여가나 교류의 장이 됨)

↓
도시 농업의 여가 이용이나 원농이 고령자 활동의 지속성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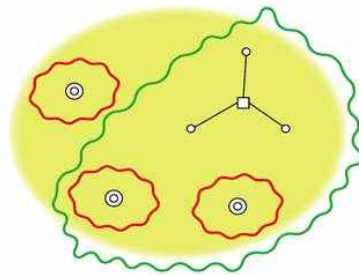
타치가와시 스나가와 지구의 농산물 직판장을 매개한 도시농업지역의 재편

→ 개별 직판장의 대응들 (상품화의 장점이 국지적·분산적)

→ 개별 직판장의 연계 (세대간의 연계, 지구 내 혹은 지구간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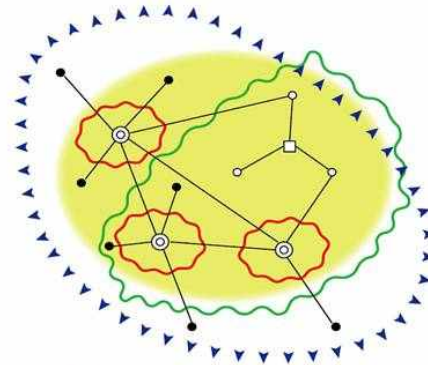
→ 개별 직판장과 농업 이외의 주체와의 연계 (광역적인 연계 및 이중 업종과의 연계)

a) 従来の都市農業地域



- ◎ 農産物直売農家
- 一般農家
- 農業以外の主体 (商業者, 工業者, サービス業者など)
- 共同の農産物直売所
- 地域 (立川市)

b) 再編された都市農業地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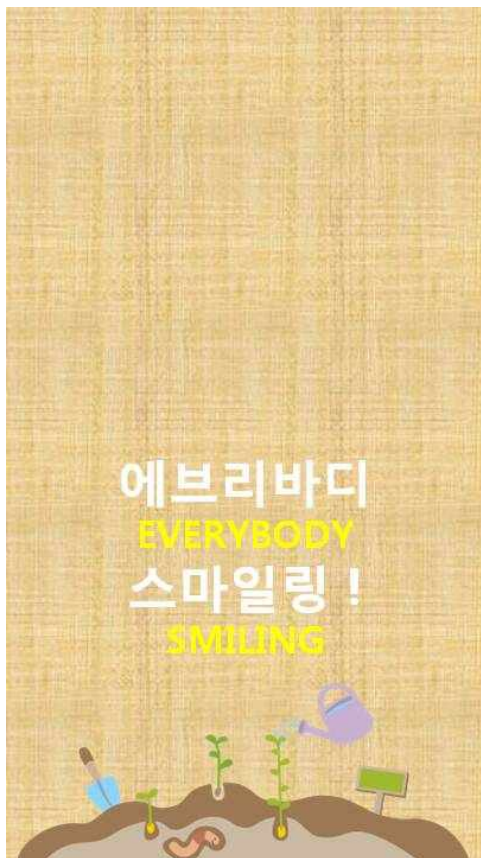


- ◎ 個人直売所の商圏
- 共同直売所の商圏
- コラボレーションした個人直売所の商圏

기조발제 2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도시농업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백혜숙(에코 11 대표)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도시농업분야 사회적일자리 창출방안

텃밭을 통해 선순환
도시생태계를 만듭니다

아스팔트 건너 어디에서나 쉽게 만나는 도시텃밭을 꿈꿉니다.
누구나 쉽게 자신의 텃밭을 가꾸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수확의 기쁨을 소외된 분들과 나누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ECO11

베이비부머세대에게 일자리는 자존감이다!

시니어-50~60대 중장년층 (뉴시니어, 액티브시니어)
베이비부머-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약700만명)

고용부에 따르면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교육전문가 8만명, 공학전문가 3만 9000명, 경영·금융전문가 2만 5000명, 건설·전기생산 관련직 2만 1000명 등 16만 5000여명의 퇴직 전문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노후 불안에 대한 대비책으로 가장 강력하게 등장하는 대안이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일자리 대책

- 정년 60세 의무화, **협동조합, 1/3세대 상생창업** 등이 있으며
- 1/3세대 상생창업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험과 청년층의 기획력을 활용해 창업할 경우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
- **사회공헌일자리 (소득+봉사+재능기부)**

고용노동부의 사회공헌 일자리(만 50세 이상의 전문 퇴직자 대상)사업은 실무 경력을 갖춘 퇴직자가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 등에서 재능을 기부하면 월 36만원의 수당을 9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이다(출처: 서울신문, 2014. 3.28.)

도시농업은 선순환 6차산업이다!

1차(농수산업)+2차(제조업)+서비스업(3차)의 융복합산업으로 선순환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장소	대상	구성				컨텐츠		
			화분	흙/퇴비	모종	자재	교육	장터	문화
개인	베란다	주부	디자인	커피토	베이비	곰팡이	핸드북	반찬	친환경
	옥상	시니어		배양토	약초	친환경 병충해 와 영양제	기술	나눔	건강
	텃밭	가족			허브		재배법		화목
공동	학교	학생	퇴비		교과		정서	봉사	식생활
	마을	청년	키친		나물	농기구	정보화	도농	투어
	공원	어린이	가든	부엌토	과수		체험	재미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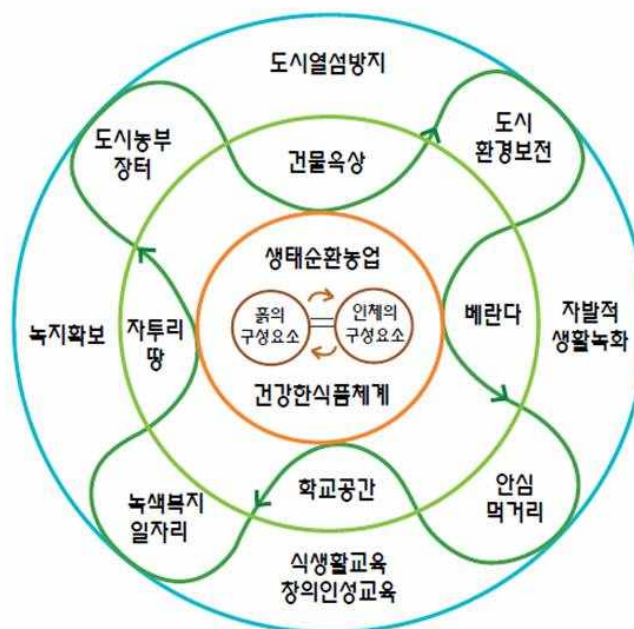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



- 공동체 보편 이익 실현
- 노동 중심의 수익 배분
- 민주적 참여
-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도시농업은 생활쓰레기, 학교폭력, 에너지, 공동체붕괴, 도시열섬 등의 도시문제 해결과 도시생물다양성, 토종씨앗보급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기여

도시농업은 생활쓰레기, 학교폭력, 에너지, 공동체붕괴, 도시열섬 등의 도시문제 해결과 도시생물다양성, 토종씨앗보급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기여



사회적경제로서의 도시농업이 성장하고 있다!

도시농업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동아리
2013	16(서울시)	5(서울시)	44(서울시)	3(서초구)	12(금천구)

텃밭보급소, 푸른미래, 파릇한절문이, 도시농부, 에코11, 도시농부들, 씨앗들, 그린플러스연합, 도시양봉, 가든하다, 동구밭, 에덴도시녹화, 에코그린팜, 달비채, 녹색드림, 가든프로젝트, 밸류가든, 머시쥬스, 더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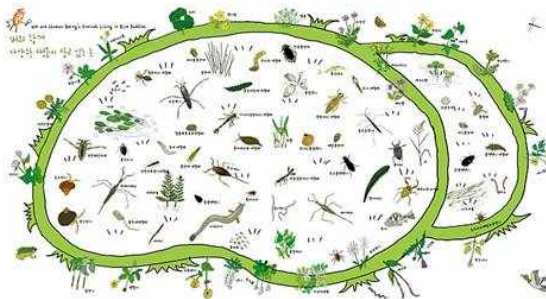
사회적경제로서 도시농업의 아이템이 다양해지고 있다!

생활 - 셀프재배
 교육 - 텃밭놀이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
 환경 - 도시농업과 생물다양성 프로그램
 기술 - 적정기술 채소건조기, GIY퇴비
 문화 - 핸드메이드제품 유통장터
 에너지 - 목화프로젝트, 생분해성라벨



▲ 출처: 벤 허틀리 홈페이지(링크)

사회적경제로서 도시농업의 아이템이 다양해지고 있다!



도시농업은 베이비부머세대 일자리로 안성맞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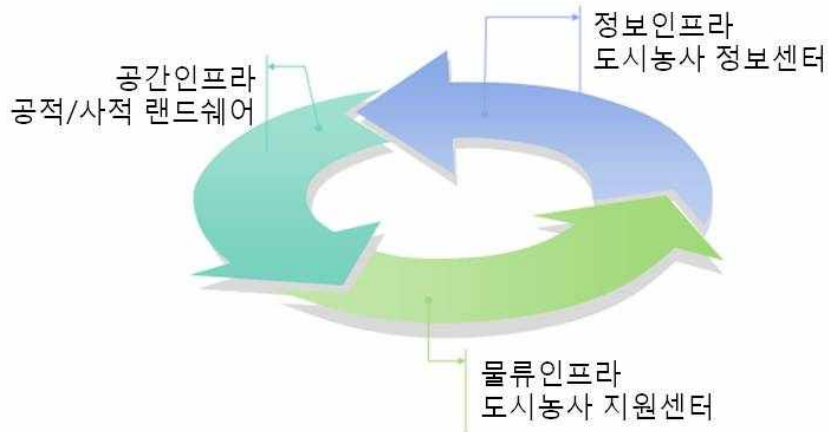
베이비부머세대는

- 경작유전자를 유지하고 있다.
- 심신의 건강을 위한 소일거리가 필요하다.
- 자연회귀 본능이 발휘될 때이다.
- 지혜가 쌓인 세대이다.
- 사회공헌 욕구가 강하고 활동적인 시니어이다.

도시농업은

- 반농반일이 가능하다.
- 생활밀착형이라 손쉽게 진입이 가능하다.
- 성장초기 단계로 발전가능성이 높다.
- 창직(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창의적 아이템을 가지고 새로운 직업이나 직무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1. 도시농업 사회적인프라를 확충한다!



2. 사회공헌 일자리를 개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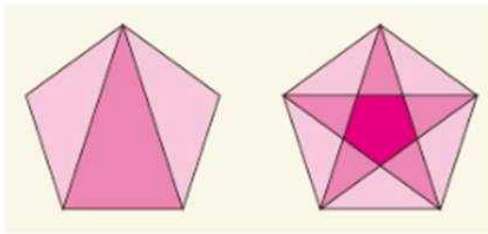
- 청소년치유농장 운영자
- 텃밭유치원 운영자
- 학교텃밭 연구자
- 도시농업 진로 지도사
- 퇴비학교 운영자
- 텃밭 소물리에
- 장애인텃밭 운영자
- 아토피텃밭 운영자
- 텃밭강사 파견
- 텃밭 정보 프라자 운영자
- 텃밭초보자 어드바이저
- 텃밭농기구대여소 운영자
- 텃밭농자재 판매자
- 학교텃밭 재료 공급자
- 도시텃밭 농산물브랜드 사업자
- 텃밭직매소
- 허브텃밭카페
- 아동텃밭매장 운영자
- 텃밭뷔페식당 운영자
- 텃밭도시락 사업자
- 텃밭네트워크 전문가
- 씨앗도서관 운영자
- 텃밭공예 전문가
- 농업공원 운영자
- 텃밭DJ
- 텃밭박물관
- 미니어저 과수농원 운영
- 지렁이농장 운영자
- 도시양봉
- 베이비립 생산자
- 로컬푸드 생산자
- 핸드메이드 식품 공방
- 채소 소스 공방
- 텃밭일손뱅크 운영자
- 각종 텃밭 조성자
- 모종(씨앗) 공급자
- 텃밭자재 배송업자
- 농업지원센터 활동가
- 랜드쉐어 운영자
- 농지임대주말농장운영자
- 농부시장 코디네이터
- 텃밭 유희 공간 디렉터
- 텃밭축제 기획자
- 텃밭 스토리 텔러
- 도시농업박람회 기획자
- 텃밭투어기획자
- 텃밭체험 기획자
- 농업공원 디자이너
- 베란다텃밭 코디네이터
- 업 사이클 디자이너
- 텃밭to밥상 플래너
- 소셜 팜 컨설턴트
- 공공텃밭 디자이너
- 농업공원 디자이너
- 텃밭봉사 코디네이터
- 텃밭농산물인증센터 운영자
- 텃밭 디렉토리 구축가
- 텃밭놀이 개발자
- 기부텃밭 중개자
- 경관농업 디자이너
- 텃밭발명가
- 도시농업 대안기술자
- 텃밭상자 제작자
- 텃밭농산물 사용량 조사원
- 도농교류전문가
- 씨일체인저
- 텃밭닥터
- 퇴비사
- 옥상텃밭 전문가
- 빗물전문가
- 텃밭해설가
- 텃밭 테라피스트
- 채식전문가
- 마을텃밭 전문가
- 전통텃밭 전문가

3. 시니어 소셜벤처로 창업한다!

소셜벤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성을 기반으로 일반 기업과 같은 영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한다.

5명이 팀이 되어.....

5명이 모이면 별이 됩니다.
별은 또 다른 5명을 품습니다.



고맙습니다

텃밭을 통해 선순환
도시생태계를 만듭니다

아스팔트 건너 어디에서나 쉽게 만나는 도시텃밭을 꿈꿉니다.
누구나 쉽게 자신의 텃밭을 가꾸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수확의 기쁨을 소외된 분들과 나누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